

해 외 출 장 보 고

- 세부출장복명서 -

- 출 장 자 : 변세일 책임연구원
- 출장기간 : 2008년 10. 8(수) ~ 10. 18(토) (9박 11일간)
- 출장국가 : 영국, 벨기에, 독일, 오스트리아

□ 출장목적

- ‘지식기반산업 육성, 문화산업 진흥, 생태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’로 거듭나고 있는 유럽지역의 주요 사례도시를 견학하여 얻은 시사점을 관련 연구에 반영하고 향후 연구수행시 참고하고자 함
-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성한 도심산업단지, 문화지구, 첨단업무지구 등을 견학하여 첨단미래지식중심도시, 국가과학산업단지, 지역발전영향평가 등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

□ 출장기간 : 2008. 10. 8(수) ~ 10. 18(토) (9박 11일간)

□ 출 장 지 : 유럽 4개국 4개 도시

- 영국 런던
- 벨기에 브뤼헤
- 독일 뮌헨
- 오스트리아 빈
- ※ 세부일정 참조

□ 세부일정(안)

날 짜		주 요 일 정	비 고
1일	10월 8일 (수)	인천 출발(13:05) - 런던 도착(16:55)	항공편
2일	10월 9일 (목)	런던 주요 도시계획시설 답사 (템즈강 주변 교통, 공원, 문화시설 등)	
3일	10월 10일 (금)	런던 출발 - 브뤼셀 도착	철도 (유로스타)
4일	10월 11일 (토)	브뤼셀 출발 - 브뤼헤 도착 브뤼헤 주요 도시계획시설 답사 (수변공간 및 문화거리 중심) 브뤼헤 출발 - 브뤼셀 도착	철도 (유레일)
5일	10월 12일 (일)	브뤼셀 출발 - 뮌헨 도착	철도 (유레일)
6일	10월 13일 (월)	뮌헨시 도시계획과 방문 (Mr. Horst Burger 면담) 뮌헨 주요 도시계획시설 답사	
7일	10월 14일 (화)	Messestadt Riem 답사 (뮌헨공항이전적지 재개발지구)	
8일	10월 15일 (수)	뮌헨 출발 - 빈 도착	철도 (유레일)
9일	10월 16일 (목)	KOTRA 빈무역관 방문 (김현철 팀장 면담) 빈 주요 도시계획시설 답사 (동역, 서역, 문화쇼핑지구)	
10일	10월 17일 (금)	빈 Uno-City 답사 빈 출발(14:45)	항공편
11일	10월 18일 (토)	인천 도착(16:20)	항공편

<세부 수행내용>

1. 영국 런던

☐ 주요 수행사항

- 템즈강 주변 주요 도시계획시설 답사

☐ 견학소감

- 템즈강 주변의 주요 역사문화시설, 시청사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가 잘 되어 있음
- 유로스타의 기존 정차역이던 워털루(Waterloo)역도 템즈강 주변에 있으며(현재 판크라스(St-Pancras)역으로 변경), 런던 시청도 템즈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음
- 특히 2002년 완공된 런던 시청은 타워 브릿지가 위치한 템즈강 북쪽에 둥근 유리로 된 돔형의 건물로 미적으로 매우 훌륭함
- 런던시청사는 구체 건물로 정육면체의 건물과 비교할 때 같은 면적의 건물대비 약 25%의 표면적도 줄일 수 있고 동일 크기 건물 대비 1/4 정도의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도 높다고 함

- 중심상업지구는 피카디리서커스(Piccadilly Circus)역을 중심으로 한 회랑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주변의 코벤트가든(Convent Garden)까지의 거리를 중심으로 뮤지컬을 을 상시 공연하여 도심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
- 템즈강 수변공간의 중간중간에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예술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
- 런던의 템즈강 수변공간 이용실태는 대구시가 향후 추진할 예정인 도심관광 활성화 및 낙동강과 금호강 수변공간의 계획적 활용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



< 템즈강 수변공간 전경1 >



< 템즈강 수변공간 전경2 >



< 템즈강 수변 공원시설 >



< 런던시청사 전경 >



< 피카디리서커스 인근 도로 전경 >



< 피카디리서커스 주변 중심상가지역 >



< 뮤지컬극장 밀집지역 >

2. 벨기에 브뤼헤

□ 주요 수행사항

- 브뤼헤 도시 전체 도보 답사

□ 견학소감

- 브뤼헤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미디(Midi)역에서 유레일을 이용하여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서플랑드르 주의 주도로 철도와 운하의 요지임
- 2006년 현재 브뤼헤의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한 때 북유럽 3대 교역도시 중의 하나였던 브뤼헤의 흥망은 바다와의 접근성, 즉 운하와의 연계성에 좌우되었음
- 13~14세기 직물업 중심의 국제교역으로 부흥기를 누렸으나 15세기 말 즈빈(Zwin)만의 토사퇴적으로 항구의 기능이 쇠퇴하자 침체 일로를 걷다가 1907년 제브뤼헤 항구와 연결 운하가 건설되면서 교역은 다시 활발해짐
- 현재는 브뤼헤는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북부의 신흥 공업지역에서는 선박, 전자장비산업 등이 발달하고 있음
- 약 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운하로 둘러싸인 구 도심 지역은 유럽의 10대 관광지 중의 하나이며 주청사

가 연결해 있는 마르크트 광장이 중심에 해당

- 2000년에는 플랑드르 유파 등 예술과 고딕양식의 건축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해 브뤼헤의 중심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됨
- 전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브뤼헤역에 안내책자와 지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운하보트 및 마차를 이용한 구도심 지역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
- 성당, 수도원, 주청사 건물 등 주요 건축물과 거리 등을 과거의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방직, 유리공예, 수공예 등 지역특산품을 연계하여 유럽의 가장 인기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로 육성함
-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회마을, 양동마을, 한개마을 등 오래된 전통가옥이 밀집해 있는 역사관광지를 잘 보존하는 동시에 철도, 운하 등과 연계할 수 있다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
- 아울러 브뤼헤에서는 와플, 맥주와 같은 전통 음식료 외에 장식용 목공예품 등 특산품을 거리 곳곳에서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데 관광자원과 특산품거리를 연계하는 것 역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참고해야 할 점임



<브뤼헤역 전경>



<운하보트장 전경 1>



<운하보트장 전경 2>



< 사랑의 호수 전경 >



<풍물거리 전경>



<브뤼헤 거리 전경>



<플랑드르 광장 전경>



<브뤼셀 미디역 전경>

3. 독일 뮌헨

□ 주요 수행사항

- 뮌헨 도시계획과 방문 : Horst Burger씨 면담
- Messestadt Riem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 답사

□ 견학소감

- Messestadt Riem은 약 560헥타아르 규모이며 뮌헨의 구 도심지역으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1992년 Erdinger Moos공항이 개항하면서 구뮌헨공항 부지에 조성한 생태 산업단지에 해당됨
 - 2013년 완공되면 13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만 4000명이 거주하게 됨
- Horst Burger씨에 따르면 Messestadt Riem명칭이 붙은 이유는 도심지역에 있는 박람회장(fairgrounds)을 뮌헨 공항이전적지로 옮기기로 결정한데 기인한다고 함
- Horst Burger씨에 따르면 Messestadt Riem를 준공 목표 연도 2013년안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, 입주민간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건설지연, 도심지역과의 거리에 비해 세제혜택 등 상가의 이점 제약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함

- Messestadt Riem의 건설에 Compact-Urban-Green이라는 3가지 원칙을 준수
 - Compact : 공간 절약 및 지구별 적정 밀도 유지
 - Urban :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프라와 문화, 레크레이션, 사회적 시설의 공급
 - Green : 주거지 주변에 자연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50%를 녹지대로 남겨 둠
- Messestadt Riem의 북쪽은 기업활동을 위한 비즈니스파크로 남쪽은 테크노파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음
- Messestadt Riem에는 기업활동 및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2개의 지하철역(동역과 서역)을 신설하였고 여러 버스노선을 연계함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였음
 - 이외 호텔, 쇼핑아케이드 등을 서역 근처의 중심상업지역에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
- 구도심 지역은 수변공간과 거리공간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마리엔광장 주변의 고풍스러운 건물에 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특산물인 소세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점이 많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음

- 우리나라도 도심지역의 확장에 따라 주민민원의 대상이자 도시기능의 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 도심공항의 역외이전시 Messestadt Riem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임



<Messestadt Riem 도시계획도>



<신시청사 건물>



<신시청사 앞 마리아안광장 전경>



<Messestadt Riem 비즈니스파크 전경 1>



<Messestadt Riem 비즈니스파크 전경 2>



<Messestadt Riem 테크노파크 전경>



<Messestadt Riem 홍보관>



<Messestadt Riem 중심상가 지역>



<뮌헨 구도심 중심상가 지역>

4. 오스트리아 빈

□ 주요 수행사항

- 코트라 빈무역관 방문 : 김현철 조사팀장 면담
- Uno City 도보 답사

□ 견학소감

-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의 도시이면서도 오스트리아의 3대 자동차산업클러스터 중의 하나인 점이 특색임
 - 빈은 그라츠와 린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벤츠, 폭스바겐 등 독일계 완성차 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음
- 김현철 무역관에 따르면 빈은 과거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결절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컨벤션산업 및 금융업의 발달을 이끌었다고 함
 - 빈의 서역은 서유럽에서 들어오는 기차가 통과하고 동역은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기차과 통과하는데 향후 동역을 재개발하여 종합교통환승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함
 - 빈의 경우 음악과 관련된 문화산업이 번성하고 있지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우노시티에 있는 EU국제센터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ACV 등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개

최 건수 세계 제1위 도시로 성장함

- 우노시티에는 EU국제센터, ACV 등 주요 건물과 주택지, 공원 등이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음
 -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선진국답게 우노시티의 주요 건물과 약 15%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이 특색임
- 빈의 사례는 오페라 전용극장이 있으며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대구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유사한 면이 많아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임



<Uno City내 ACV(Austria Center Vienna)전경>



<Uno City내 EU International Center 전경>



<Uno City 내 태양광에너지시설 설치 주택>



<빈 서역 앞 주요 상가거리(마리아hilfer)>



<빈 중심 상가거리(게른터너거리)>



<빈 지하철 전경>



<빈 동역 앞 거리 전경>